

이슈 리포트

18

2003년 11월 둘째주(11/10 ~ 15)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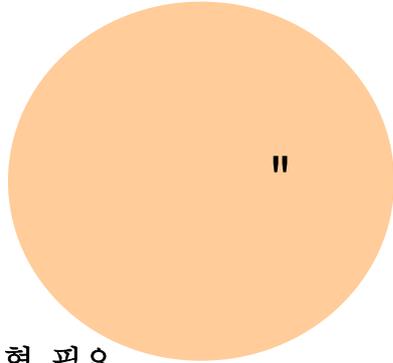
- 세상돋보기:	수능자살, 사회책임
- 노동자 세상:	노동탄압백서
- 통신정책:	텔레매틱스
- 정자동 6층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 만화방	시사 만화



KT노동조합 정책기획실



" 가



[수험생 잇단 자살 진단] 입시제도 근본적 개혁 필요

☞ 수능 시험을 보던 여학생이 근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꼭 죽어야 하는가?부터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는가? 요즘 아이들의 심약한 심성문제....

그러나 최근 수능 시험 기간 동안 5명내외의 학생이 자살한 것을 보면, 분명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조합간부 자녀 중에는 금번에 수능시험을 본 경우부터 아직 어린 경우, 아니면 이미 그 연령을 지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대학입시제도는 우리모두의 문제이며, 사회 전반의 문제이다. 당연히 인간다운 사회를 지향하는 KT노조 조합간부가 입시제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신문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기사를 통해 건강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그려본다.

전교조, "송양 자살은 구조적 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5일 성명을 통해 "수능 시험 철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학벌 풍조와 그에 따른 살인적 입시 경쟁"이 송양을 자살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송양의 자살은 사실상 "구조적 살인"이란 것이다.

전교조의 송원재 대변인은 "매년 반복되는 이런 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개선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대학 평준화를 통한 서열화 해소'와 '학벌주의 풍토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의 김태수 사무처장도 전교조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 사무처장 역시 "'대학 평준화', '서울대 학부제 폐지', '지역 인재 할당제', 학제 개편에 따른 직업 교육 강화 등이 도입될 때 비로소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시험 자격고사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

현재 수능 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제도 개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송 대변인은 "현재 수능 시험은 너무 어려워서 애들의 학습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수능 시험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단기적으로는 수능 시험을 쉽게 출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격고사 정도의 위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수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각 대학들이 내신 성적의 비중을 높이고, 수능 성적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상대 평가를 도입하고 있는 수능 성적을 "절대 평가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수능 시험, 정신의학적으로도 비인간적

한편 3년 동안 배운 것을 하루에 걸친 1번의 시험으로 평가하는 현 수능 시험은 정신의학적으로도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배기영 박사(동교신경정신과)는 프레스미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하루만에 3년간 배운 것을 평가받는 현 수능 시험은 수험생들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배기영 박사는 "스트레스는 그와 관련된 정신병 그룹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정신의학적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배기영 박사는 "만약 아프거나 다른 이유로 결시하거나 수능 성적이 낮게 나올 경우에는, 1년이나 수험 생활을 다시 해야 한다"면서 "이 역시 수험생들에게 큰 중압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기영 박사는 "하루만에 수능 시험의 전 과목을 치르는 것도 큰 문제"라면서 "하루종일 시험을 치를 경우 학생들이 집중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그만큼 부담감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박사는 "당락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2점의 점수가 매우 중요한 현 수능 시험 제도는 매우 비인간적"이라고 덧붙였다.

배기영 박사는 "시험을 이틀에 나눠서 치르거나, 1년에 2~3번에 나눠서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송 대변인도 "1년에 수능 시험을 3번 본다면 수험생들이 목숨

을 끊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류층?명문대 이기주의가 개혁 막아

송원재 대변인과 김태수 사무처장은 상류층과 명문대의 이기주의가 개혁을 막는다고 입을 모았다.

상류층은 자기 자식들에게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학벌 풍조와 경쟁 위주의 입시 제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송 대변인은 "상류층은 이미 경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체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부나 정부도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상류층의 발목잡기 때문에 개혁을 시도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수 사무처장은 "명문대의 이기주의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명문대가 우수 학생 확보를 위해서 수능 시험 비중을 계속 높이고, 수능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게끔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명문대들이 수능 시험 비중을 낮추고, 지역 인재 할당제를 당장 실시한다면 가시적인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명문대학 재학생들이나 동문들이 갖고 있는 '대학 이기주의'도 교육 개혁의 장애물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의 보도행태도 문제

언론의 보도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김태수 사무처장은 "언론이 수능 시험이나 입시제도 등을 보도할 때 근시안적인 보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학벌 풍조 개선 등 좀더 근본적인 교육 개혁에 신경을 쏟을 때"라고 지적했다.

송원재 대변인도 "수능 시험이나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일관된 논리를 갖고 접근하는 언론이 부재하다"면서 "특히 조?중?동의 경우에는 우수 인재 선발 쪽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자연히 기사의 방향도 변별력을 높이는 수능 시험을 요구하거나, 경쟁을 강요하는 쪽으로 치중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학생의 날'인 지난 3일 15명 남짓한 학생들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입시 부담 자살 학생 추모제'를 열었다. 학생들은 친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한국 사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답할 때이다.

"학생들이 나약해서 죽었다는 허튼 소리는 그만해라. 학생들은 이러한 학벌사회가 만든 희생자다. 우리는 죽은 친구들을 마음 속 깊이 기억할 것이다." ♣

한진중공업과 세진테크 등에서 전개되는 노동운동탄압에 맞서 노조간부들이 분신, 자살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한진중공업과 세진테크, 근로자복지공단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특수한 문제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의 노동문제라는 것이 자료로 입증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 최근 2003년 노동탄압백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역대정권보다 민주적이고 진보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파업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거나 구속, 수배 당하는 경우가 역대 정권과 큰 차이가 없고, 장기적인 투쟁 사업장도 해결되지 않는 등 노동조합 영역에서는 암흑의 시대와 다르지 않는 정도이다.

우리 노조간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우리 노동계의 어두운 모습들을 살펴보자. 그것들은 결코 남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이전부터 투쟁현장에 경찰력 투입

노무현정부는 인수위 당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노사분규에 대한 경찰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정권초기부터 무너졌다. 철도노조에 공권력이 투입되기 10일전부터 안산시흥지역의 작은 금창공업이라는 곳에 경찰력 투입이 되었고, 최근에는 세원테크 고 이현중 동지 장례관련하여 경찰들이 난입하여 농성을 해산하기도 하였다.

과거 정권과 다르지 않은 구속노동자 수.

구속노동자관련해서도 노무현 정권은 인수위 시절 “노사분규관련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사실은 과거 DJ정권과 차이가 나지 않는 구속자 숫자이다.

구속사유는 업무방해와 폭력 등이 주류를 이뤄 마치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켜진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KT노조 간부들도 잘 알고 경험하였듯이 노동조합의 쟁의를 억지로 분리하여 업무방해와 폭력으로 둔갑시킨 것들이다.

구속노동자 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10.24)
구속노동자 수	97명	241명	200명	144명

부당해고자 양산

노동탄압의 현상이 달라지지 않았기에 이와 관련 부당해고자도 양산되었다. 민주노총이 자체 조사한 2003년 신규부당해고 노동자수는 9월말 현재 이미 2,052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조사가 가능한 노동조합이라는 점에서 극히 적은 수의 사업장만 조사대상이었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 해고자 현황

구분	공공연맹	금속산업연맹	건설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	운송화역노조
내역	철도노조 79 명 등 150명	현대 비정규 직 등 12명	건설운송노조 등 13명	군모닝 한주 등 42명	화물연대 등 835명

공기업의 손배와 가압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3년 10월 20일 현재 손해배상.가압류는 45개 사업장, 1천 335억 9천 218만 5천 222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사건을 계기로 손배. 특히 가압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약간 줄어들다가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손배 청구를 계기로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경총 등 자본단체에서는 손배와 가압류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낼정도이다.

또한

최근 분신정국을 수습하겠다고 정부에서는 손배와 가압류를 최소화하도록 법을 정비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부의 공기업에서 조차 손배와 가압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당장 투쟁국면을 모면하자는 술수에 지나지 않음을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다.

노동쟁의 발생 건 수 및 장기분규가 늘고 있다.

노동쟁의 발생건수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8월말현재)
발생건수	250건	235건	322건	276건
참가자수	177,969명	88,548명	93,859명	124,205명

반기를 조금 넘어선 8월말 현재 전체 쟁의발생 건수는 2000년, 2001년의 연간 발생건수보다 많으며, 분규가 발생하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분규로 이어지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KT 가

?

☞ KT 가 뒤늦게 텔레매틱스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되었다고 언론에 발표되었다.

언론에 의하면 'KT 는 텔레매틱스 사업추진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시연을 마쳤으며, 이는 휴대인터넷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위한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사업은 우리에게 언제나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매출확대와 신사업 진출은 우리 고용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때문이다. 당연히 KT 노조간부는 신사업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의 질문에 답도 하고, 또 회사 업무 파악도 할 수 있으니...

필자조차도 잘 모르기에 인터넷 여기 저기를 뒤져서 매우 기초적인 이야기를 게재합니다.

자동차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파고들면서 `텔레매틱스'(telematics)라는 새로운 컴퓨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텔레매틱스는 무선통신기술과 인공위성 위치표시 시스템(GPS), 인터넷 상에서 문자신호와 음성신호를 자유로이 맞바꾸는 기술 그리고 자동차에 내장된 컴퓨터 회로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작품이다.

자동차가 주행 중 고장이 나면 무선통신으로 서비스 센터에 연결되고, 운전석 앞에 달린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이메일을 받아보거나 도로지도를 볼 수 있다. 또한 뒷좌석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컴퓨터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엔진 속에 내장된 컴퓨터는 자동차 주요부분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어 언제라도 정비사에게 정확한 고장 위치와 원인을 전해준다. 이 모든 기능을 통합한 자동차용 컴퓨터 시스템을 텔레매틱스라고 부른다.

미국의 자동차업계에서 처음으로 텔레매틱스 바람을 일으킨 업체는 GM 이다. GM 은 다른 메이커에 앞서 `온스타'라는 이름의 텔레매틱스 시스템을 상용화시켰다. 온스타는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운전자가 룸미러 옆에 달린 스위치를 누르면 GM 서비스센터로 무선통신을 연결시킴과 동시에 인공위성 위치표시 시스템을 이용해 정확한 자동차의 위치를 전달한다. 운전자가 스피커를 통해 서비스 센터의 기술자에게 고장상태를 설명하면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정비소로부터 서비스맨이 달려온다.

참으로 환상적인 이야기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에도 이런 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텔레매틱스는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사업개발에 나섰으나 최대 유선업체인 KT 까지 진출할 경우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KT 의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네트워크 기반의 휴대인터넷 사업과 연동함으로써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타 업체의 텔레매틱스와 차별화를 이룰 계획이며 또한 휴대인터넷과 연동할 경우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 단순한 교통정보뿐 아니라 동영상 서비스도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가격도 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지금 노동계는 어제 전국의 노조간부와 수도권 조합원들이 노동자대회에 참여하였듯이, 동투(冬鬪)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날씨는 추운 겨울에 접어들고 있지만 투쟁 열기는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일주일에 2 ~ 3번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난 6일에는 4시간 총파업, 12일에는 1일 총파업이 진행되고 계획되고 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노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손해배상, 가압류문제, 비정규직 철폐, 노동조합 탄압 중지’ 등이 당장 우리의 문제는 물론 아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KT의 문제가 아니지만 영원히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다.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렵다고 하지만 현재 통신산업과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분야이다. 이런 좋은 조건으로 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크게 개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유동적이다. 그리고 아직 통신시장의 과잉투자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노조탄압 유형과 비정규직 문제 등은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노동계 전반에 손배와 가압류 등의 노동조합 탄압이 시정되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제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닥칠지 모를 일이다.

결정사항을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 실천하는 해야.

민주노총에서는 6일 4시간 총파업을 결정하였고, 12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을 하자고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되었다. 물론 파업에 참여하는 숫자는 결정과 달리 많지 않다. 그런 면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의 현장 인식과 책임성이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고민은 잘못된 결정이지만 전혀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단위 노동조합만 고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듯이, 상급단체와 노동계의 연대는 단위기업노조에 마치 물고기와 물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

당연히 노동계의 강화와 손배, 가압류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조건과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결정사항 취지에 맞게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 실천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본다. 취지는 전체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회 여론화와 정권에 압력이 되는 수단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

집회참여, 모금활동 등을 적극 실천하자.

얼마 전 민주노총에서는 2일간의 총파업, 집회 그리고 투쟁기금 모금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중앙본부에서는 총파업 등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간부의 집회참가, 그리고 투쟁기금 모금 등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지침으로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간부들은 ‘조합원들이 관심이 없다’, ‘특별명퇴로 인한 업무 하중으로 고생하는데 웬 만나라 소리냐?’고 말하며 움직임이 적다.

심지어 수도권에서 집회 참가한 노조간부는 출장비 처리 안 해준다고 불멘소리를 한다.

최소한의 이런 활동마저 안 한다면 어찌하자는 것인가?

타 노동조합은 저 멀리 지방에서 자기돈 들여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군다나 분신하고 자살한 분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고귀한 자신의 생명을 받치지 않았는가?

어느 지부의 조합원들은 특히 관심이 적을 수 있고, 업무가 많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현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스스로 제안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노동조합운동은 자주적운동이다. 스스로 원해서 하는 활동이다.

노조간부는 소명의식을 갖고, 자신을 헌신하여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노조가 크든, 재정이 많든, 조건이 향상되든 자주성과 헌신성이 무너지면 노동조합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때는 노동조합이 아닌 이익단체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당당한 노동조합!!

남이 한다고 체면상하고, 뻔히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뺱카’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남 탓만 하면서 최소한의 기본 도리를 하지 않은 것은 더더욱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노동문제나 사회문제를 보고, 우리의 방법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당당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야 노동조합이 우리 직장과 이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